



<박주영>

폭우에도 K리그는 계속된다

“장맛비가 물러가라”

“월드컵 방학” 이후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한 프로축구 광주 상무가 지루한 장맛비를 뚫고 수원 삼성을 상대로 2연승을 꿈꾼다.

10위에 랭크된 광주 상무는 19일 오후 7시 수원월드컵 경기장에서 전력적으로 다소 부담스러운 ‘레알’ 수원을 맞아 프로축구 삼성하우젠컵 2006 10라운드 경기를 벌인다.

광주상무, 오늘 수원 원정경기

15일 승리 여세로 2연승 기대

전남은 경남 상대 ‘승수쌍기’

광주는 지난 15일 인천전서 컵대회 1호골을 터트리며 3-2 승리를 이끈 남궁도과 이윤섭, 김용희를 앞세워 중위권 도약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다리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말년병장’ 정경호의 빈자리가 다소 아쉽다.

13경기 연속 무승(5무 8패)로 다소 부진했던 수원도 월드컵 이후 김남일, 송종국 등 든든한 중원들의 복귀로 팀 전력이 한층 상승함에 따라 첫 승의 제물로 광주 상무를 노리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15일 부산전서 0-1로 석패한 전남 드래곤즈도 이날 오후 8시 창원종합경기장에서 경남FC를 상대로 분풀이에 나선다.

4승 2무 3패로 단독 5위를 달리고 있는 전남은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경남(11위)전에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전남은 전방

에 주광윤과 구현서, 송정현을 투입하고 허리에 김호유와 김태수, 김효일을 배치, 상대적으로 수비가 약한 경남의 골문을 노릴 계획이다. 뒷문은 ‘태극전사’ 김영광이 든든히 지킨다.

이날 오후 7시 30분 울산서 열리는 태극전사 이천수(울산 현대)와 박주영(FC서울)의 맞대결도 볼거리다.

박주영은 일단 벤치에 앉았다가 후반 ‘조커’로 출격할 것으로

박주영(서울)-이천수(울산)

울산서 자존심 건 한판승부

‘기권패’ 제주, 부산과 일전

보인다.

독일에 다녀온 뒤 심리적으로 다소 위축돼 있다는 구단의 판단 때문이다.

지난 15일 대전 시티즌과 경기에서 리그 데뷔 이후 첫 헤딩골을 꽂아넣은 이천수는 최근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린 최성국과 함께 울산의 공격 편대를 이끈다.

한편 대구FC는 달구벌에서 전복 현대와, 인천 유나이티드는 문학구장서 대전과 맞붙는다.

지난 16일 포항 송라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포항-제주전을 거부해 기권패를 당한 제주 유나이티드도 서귀포에서 부산 아이파크와 홈 경기를 치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천수>

바닷바람·무성한 러프·항아리형 멍커 ... 넘어야 산다



타이거 우즈가 18일 영국 리버풀 로열리버풀링크스코스에서 열린 브리티시오픈골프대회 연습라운드 7번홀에서 수많은 갤러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샷을 하고 있다. 링크스코스답게 황량한 벌판과 무성하고 거친 러프가 펼쳐져 있다. /AFP=연합뉴스

‘세상에 하나 뿐인 오픈대회’ 정상을 향해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브리티시오픈골프대회(총상금 700만달러)가 20일(한국시간) 오후 영국 리버풀의 로열리버풀링크스코스에서 막을 올린다.

영국왕립골프협회(R&A)가 주관하는 브리티시오픈의 공식 대회 명칭은 ‘디 오픈(The Open)’이다. 세상에 단 하나 뿐인 오픈대회라는 뜻이다.

1860년 첫 대회를 연 브리티시오픈은 146년 동안 제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탓에 12차례 결렸을 뿐 전통을 이어 와 올해 135번째 챔피언 탄생을 기다리고 있다.

미국프로골프(PGA), 유럽프로골프(EPGA) 등 양대 투어 대회를 겸하고 있으며 PGA 투어에서는 시즌 세 번

째 메이저대회.

우승자에게는 상금 130만여 달러 뿐 아니라 평생 ‘디 오픈 챔피언’이라는 명예가 따라 다닌다.

역대 챔피언 및 다른 메이저대회 우승자와 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 호주, 아시아 등 주요 골프투어 상금랭킹 상위 선수 등만 출전한다.

이처럼 영광스러운 무대에 한국인 선수는 작년에 이어 3명이 참가한다.

올해로 벌써 이 대회에 일곱 번째 나서는 최경주(36·나이키골프)는 일찌감치 출전권을 획득했고 허석호(33)는 지난 달 일본프로골프(JGTO) 투어 미즈노오픈 우승

과 함께 JGTO 상금랭킹 2위 자격으로 4년 연속 브리티시오픈 출전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아시아프로골프투어와 호주프로골프투어를 뛰고

있는 호주교포 박운호(32)는 지난 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지역 예선을 공동 1위로 통과해 리버풀행 티켓을 손에 넣었다.

브리티시오픈만 갖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대회 장소로 링크스코스만 선택한다는 점이다.

영국왕립골프협회는 13개 링크스코스 가운데 해마다 1곳을 정해 대회를 열고 있다.

바다를 끼고 있는 황량한 벌판에 자연 환경을 그대로 살려 조성한 링크스코스는 시도 때도 없이 방향을 바꿔가며 불어대는 바닷바람과 좀처럼 탈출이 어려운 항아리형 멍커가 상징이다.

게다가 좁다란 페어웨이를 에워싸고 있는 무릎 높이의 거친 러프와 단단하고 빠른 그린은 공포의 대상이다.

한편 대회조직위가 발표한 조편성에 따르면 최경주는

2003년 로열 세인트조지스링크스에서 깜짝 우승을 차지했던 벤 커티스(미국)와 1, 2라운드를 함께 치른다.

유럽투어의 강호 브래들리 드레이지(웨일스)와 커티스 등과 같은 조에 편성된 최경주의 티오프 시간은 20일 오후 4시14분.

20일 오후 3시52분에 경기를 시작하는 허석호는 지난 17일 존디어클래식 우승으로 마지막 1장 남은 출전권을 따낸 존 센텐(호주), 그리고 미코 일로넨(핀란드)과 함께 플레이를 펼친다.

대회 2연패에 나서는 우즈의 동반자는 브리티시오픈을 3차례나 제패한 닉 팔도(잉글랜드)와 일본프로골프의 1인자 가타야마 신고(일본)로 정해졌다. 우즈와 팔도, 가타야마는 20일 오후 11시9분 티오프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남·여 프로골퍼 세계랭킹

- 최경주 51위
위성미 2위
장정 9위
김미현 15위→11위
한희원 11위→12위
박세리 14위→13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무대에서 시즌 2승을 거두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 ‘슈퍼 팡공’ 김미현(29·KTF)의 세계 랭킹이 11위로 도약했다.

김미현은 18일(한국시간) 발표된 볼렉스 여자골프 주간 랭킹에서 지난주보다 4계단 오른 11위에 올라 톱10 진입을 눈앞에 뒀다.

한희원(28·힐라코리아)는 지난주보다 한 계단 내린 12위, 박세리(29·CJ)는 한 계단 오른 13위로 김미현의 뒤를 이었다.

위성미(17·나이키골프)와 장정(26·기업은행)은 각각 2위와 9위를 유지했다.

한편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주간 랭킹 발표에서 ‘탱크’ 최경주(36·나이키골프)는 51위에 랭크돼 50위권 밖으로 밀렸다.

최경주는 2003년 10월 랭킹 15위까지 오른 적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19일(수)

▲메이저리그<아메리칸-내셔널>(08:50·Xports)

▲프로야구<롯데-KIA>(18:30·KBS SKY SPORTS), <현대-한화>(18:50·SBS 스포츠), <삼성-두산>(19:00·MBC ESPN)